

광주FC, K리그1 잔류 유리한 고지 점했다

서울에 3-1 승... 7위 수성 성공
허율·이건희·아사나 연속 득점
강등권 10위 전북과 6점 차 유지
19일께 파이널B 첫 경기 시작



프로축구 광주FC가 정규 라운드 최종전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1부 리그 잔류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광주는 FC서울을 상대로 완승을 거둬 파이널 라운드에서 2승을 거두면 사실상 잔류를 자력으로 확정 지을 수 있게 됐다.

광주는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14승 1무 18패(승점 43)를 기록, 7위로 정규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이정호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꺼내 들었다. 허율과 최경록을 투톱으로 이희균과 정호연, 박태준, 정지훈이 허리 라인을 구축했다. 이민기와 안영규, 변준수, 김진호가 포백을 이뤘고 김경민이 골키퍼 장갑을 꼈다.

광주와 서울은 올 시즌 맞대결을 치를 때마다 치열한 공방전을 치렀던 만큼 이날 경기 역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상대를 공략했다. 좋지 못한 그라운드 컨디션에도 상대 진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었다.

광주는 전반 10분 정지훈이 서울 야장



광주FC 허율(왼쪽)이 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 홈경기에서 선제골 겸 결승골을 터트린 뒤 변준수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의 긴 패스를 끊어낸 뒤 치고 달리며 기회를 노렸으나 강상우의 태클에 막혔고, 서울은 전반 15분 이승모의 헤더가 골포스트 옆으로 빗나갔다. 이어 광주는 전반 16분 이희균의 긴 침투 패스를 받은 허율의 슈팅이 나왔으나 높이가 떨어졌다.

선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양 팀은 전반 중반부터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막바지로 가면서 부상 변수가 발생했다. 전반

41분 서울 이승모가 광주 정호연과 경합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전반을 소득 없이 마친 광주는 후반 들어 주도권을 잡았다. 후반 6분 아사나의 슈팅이 털 감기며 강현무 골키퍼의 손바닥으로 향했고, 후반 10분에는 이희균이 몸으로 막아낸 공을 허율이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아잔이 막아냈다.

또 후반 12분 최경록의 코너킥을 변준수가 머리에 맞았으나 강현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후반 14분에는 아사나가 우측면에서 치고 들어가며 시도한 슈팅이 살짝 벗었다.

파상공세를 가한 광주는 끝내 득점으로 결실을 맺었다. 후반 29분 변준수가 중원에서 길게 투입한 전진 패스를 허율이 돌아서며 슈팅했고, 강현무 골키퍼를 맞

음에도 골라인을 통과했다. 부심이 깃발을 들어 울렸으나 김희곤 주심이 VAR실과 교신 후 득점을 인정하며 1-0으로 앞서 나갔다.

선제 득점을 터트린 광주는 곧바로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 34분 정호연과 이민기가 상대 진영에서 강한 압박으로 소유권을 탈취해 골문 앞에 있던 이건희에게 건넸고, 이건희가 수비 견제를 이겨내고 슈팅으로 연결하며 2-0으로 달아났다.

광주는 후반 37분 만회골을 내줬다. 서울의 링가드가 수비가 머리로 걷어낸 공을 잡아 감아 차 광주 골문을 열었다.

하지만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 7분 아사나가 가브리엘의 전진 패스를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해 상대 골망을 흔들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정호 감독은 경기 후 "가와사키 원정을 다녀와서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모두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 준비하는데도 많이 힘들었다"면서도 "리그에서 연패를 끊었는데 가와사키에서 우리 환경만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진다면 어떤 팀을 상대로든 우리 축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총평했다.

이어 "당연히 K리그가 우선이다. 최대한 부상 없이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없이 치르겠다"며 "계획을 잘 짜서 코칭스태프와 헤쳐나가 보겠다. 자력으로 잔류를 하려면 2승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광주시체육회, 전국체전 결단식 선전 다짐

육상 등 49개 종목 1424명 출전

오는 11~17일 경남 김해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15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시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4일 광주 빙고를 체육관에서 '제115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과 종목단체 관계자, 임원 및 선수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 육상 등 49개 종목 1424명(선수 1081·임원 343명)이 출전해 종합순위 10위를 목표로 한다.

이번 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은 광주시정

육상팀의 남자 400m 계주 4연패와 '허들 여제' 정혜림(광주시청)의 9연패, 근대5종 국가대표 전용태(광주시청)·지난해 체전 7관왕의 위업을 일군 체조 문건영(광주체고) 등의 다관왕을 기대하고 있다.

전갑수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시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광주시민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유난히 더웠던 여름 흘린 땀과 노력의 성과가 최고의 경기력으로 펼쳐지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단식에서는 정일이엔지(대표이사 정상훈), ㈜에드온에너지(김준섭 사장), 대명외식산업(정선교 대표이사),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 등 지역 기업체도 참여해 선수단 격려금과 광주체육진흥 후원금을 전달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고 불링,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 종합우승

3인조전·마스터즈 '金·金'

광주체고 불링이 제4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불링대회 남18세이하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불링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경남 김해 K플러스불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3인조전과 마스터즈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남18세이하부 종합 1위를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표재운·김성혁(이상 2년)·강다훈(1년)이 2일 열린 3인조전에서 4경기 합계 2851점(평균 237.6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김성혁은 지난 5일 개



광주체고 불링 3인조전 표재운(왼쪽부터)·강다훈·김성혁. **광주체고 제공**

인종합순위 10위권까지 출전권이 주어진 마스터즈 경기에서 합계 2050점(평균 205점)으로 1위를 하며 금메달을 추가,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22일 ACLE 3차전 경기 용인서 치른다

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문제
아축구연맹, 대체 구장 요구

광주FC가 홈 경기장 잔디 훼손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됐다.

6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7시 예정된 광주FC와 조호르 다룰 탁짐FC(말레이시아)의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3차전이 경기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경기 장소가 홈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이 아닌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 변경된 이유는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잔디 상태 때문이다.

광주FC는 지난달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ACLE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치렀다. 하지만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해 정상적인 경기를 치를 수 없었고 상대인 요코하마 구단과 선수단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AFC 역시 잔디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당시 경기를 관장했던 AFC 경기 감독관이 잔디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와 관련 광주 구단에 대체 구장을 마련하고 잔디 보수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월드컵경기장 관리 주체인 광주시체육회는 3차전 개최 전날인 21일까지 잔디 천공 작업과 롤 잔디 보식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AFC의 결정은



광주FC가 지난달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1차전을 치른 가운데 잔디 상태가 악화돼 있다. **광주FC 제공**

대체 구장 개최였다.

대체 구장 개최에는 광주시체육회의 안일한 행정도 한몫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상 기온과 과도한 사용으로 훼손된 타 구장들과는 달리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광주시로부터 수년간 광주월드컵경기장 대관을 통한 수익 창출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광주시체육회가 잔디 훼손 우려에도 지난 7월 초대형 콘서트를 강행했고 무대 설치와 관객 입장, 대량 살수 등으로 잔디를 고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리그 스테이지 1차전 직전 AFC 실사에서 잔디 상태에 대한 우려를 받았음에도 훼손된 일부 지역의 롤 잔디 보식만 진행해 공식 훈련과 경기에서도 훼손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콘서트 개최 이후 광주시체육회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않았다. 두 달 넘는 복구 기간에도 부분 보식과 영양제 살포 등 조치에 그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전면 보식을 즉시 진행했다면 이상 기온에도 어느 정도 뿌리가 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석달 넘게 지속된 전국적인 이상 기온으로 잔디가 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촉박한 일정에도 정해진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잔디를 관리했지만 3차전 경기를 용인에서 하게 돼 안타깝다"며 "오는 14일까지 훼손된 3/1 부분을 롤 잔디로 교체하는 등 11월 27일 열리는 상하이선화전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규빈 기자**